

창조경륜과 구속사

구속사 설교 포럼

1. 창조경륜이 구속사의 근거이며 기초이다.

창세전에 ‘창조경륜’을 가지셨다. 그리고 그 창조경륜에 근거해서 만유를 창조하셨으며, 만유를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창조경륜은 만유의 근거가 되고, 만유의 존재 목적을 제시하며, 인류 역사를 구속사로 이해하게 하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

하나님의 창조경륜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하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실 때 아들을 중보자로 세우셔서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만유를 자기나라(=천국, kingdom of God)로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께서 만유로 자기를 창조한 자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경륜의 이 세 가지 구조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었고 하나님의 만들어 오시는 구속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엡3:9)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딤후1:4)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2. 창조경륜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서 만유를 아들을 통해서 창조하심이다.

그의 창조경륜을 근거로 만유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경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들을 중보자로 세우심이다. 곧 완전한 영이시고 절대 인격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실 뿐 아니라, 아들을 중보자로 삼아 만유를 창조하시기로 하셨다.

무한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실 뿐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만유를 창조하심은, 아들이 창조한 만유가 자기를 창조한 아들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다.

(요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1:15-16)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16/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3.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서 만유를 자기 나라로 창조하심이다.**

만유를 창조하실 때에 아들을 통해서 창조하시되, 만유를 자기의 나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로 창조하신 만유를 자기 나라로 회복하고 완성함이 구원이다.

구원사적 종말론은 ‘하나님의 창조경륜의 궁극적 완성’에 근거한다. 곧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창조의 회복)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통치(창조의 완성) 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창조경륜의 목적이다.

(계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4. 세 번째 요소는, 만유로 자기를 창조한 자의 영광에 이르게 하심이다.

창조경륜의 목적을 따라 인간과 맺은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의 창조언약은 인간으로 자기를 창조한 자의 영광에 이르게 함이 그 목적이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한 인간과 선약과 계명으로 언약을 맺으셔서 인간으로 자기를 창조한 자의 영광에 이르기를 목적하셨다.

창조언약(창2:16-17)의 목표는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아들을 닮게 하셔서 아들의 영광에 이르게 하심이었다. 인간이 범죄 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대자로 자신을 내어주셨기에 자신의 희생을 통해 창조언약이 성취되도록 하셨다.

물론 하나님과 피조물의 한계는 분명하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도 신성과 인성을 섞는 것이 아니고 두 존재간의 거리는 엄격하게 넘어설 수 없다.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영화될찌라도 여전히 피조물로 남는다.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처음 낙원의 상태를 넘어서서 새 에덴으로 완성되지만 피조물의 한계선을 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3:21)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하시리라

5. 존재와 사역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보좌우편에 좌정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이다. 교회는 자신의 존재와 사역으로 하늘과 땅을 통합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서 하늘로의 공간적인 이동이 이뤄진 공동체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부활의 사건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된 승천의 사역으로 이해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미 땅에서 막연히 하늘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서 땅의 지체를 죽이고 승리가 보장된 영적인 전쟁을 진행하는 종말적인 공동체이다.

미완성 낙원이었다면 새 에덴은 완성된 낙원이다.

(엡2:5-7)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골3:1-4)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4/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6. 나라는 시간의 변화가 아닌 공간의 변화이다. 창조경륜의 진행과정이 구속사(History of Redemption)이다.

창조경륜의 목표이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을 통해 진행되어 왔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보좌좌정과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취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도입된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의 변화가 아닌 공간의 변화이다. 곧 교회라는 구조를 통해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의 연합이 이뤄졌다. 이는 삼위의 존재구조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됨을 말한다. 즉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 구조에는 변화가 이루어졌다.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구조 속에 아들의 몸 된 교회가 포함되었다.

(엡2:5-7)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14:20)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7. **점진적인 계시의 탐구가 주경신학이고 종합적인 계시의 탐구가 교의 신학이다.**

시대적 계시의 전개에 집중한다. 계시는 한 시대에 모두 주어진 것이 아니고 많은 시대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개진되었다. 계시는 그 시대의 언어와 사고로 성육신하였다. 그러므로 계시는 시대적 특성을 가지고 유기적 성격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다. 이 유기적 특성과 시대 제약성의 관점에서 계시를 살피고 계시 상호간에 조화와 특성을 살피며, 계시의 시대적 전개를 중심하는 것이 주경 신학의 일이다. 따라서 주경 신학적 관점에서 계시는 그 시대적 제약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교의신학(조직신학)은 전 계시의 내용을 종합하여 사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계시의 종합적 통일화 작업을 통해서 믿음의 내용을 구성한다. 계시의 시대적 특성과 연관에서 떠나 계시의 내용의 연결을 중시하면서 계시가 뜻하는 근본 진리를 파악한다. 곧 계시의 진리가 믿음의 내용으로 믿어지게 하는 권위적 정립에 신학 작업의 방법을 갖는다. 그 권위적 정립은 신학자의 논리적 전개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에 근거한다. 즉 계시의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계시 자체에서 도출하고 제시한다. 이로써 바른 성경주석과 교회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한다.

(11: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갈1:12)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8. **하나님의 자기계시이며 최종계시이고 궁극적 계시이다.**

하나님은 창조계시로만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으셨다. 창조 후에 말씀으로 피조물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말씀계시로 자기의 존재, 지혜와 권능, 작정과 경륜 등을 다 알리셨다. 창조명령도 특별계시이고, 말씀으로 첫 인류와 언약을 체결하여 첫 인류를 자기 백성을 삼으셨고, 인류의 반역 후에도 말씀계시로 자기의 구원경륜을 밝히셨다.

하나님께서서는 성경에 자기의 인격, 창조경륜과 구원경륜을 밝히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밝히신 창조경륜과 구원경륜의 성취과정도 성경으로 종합되게 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최종계시이고 궁극적 계시이다. 성경은 자기 가신성(자증)으로 모든 교리와 신학과 종교를 판정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시에 근거해서 사물과 사건과 자기 존재를 사색해야 한다.

(엡1: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9. 종말론은 참된 현실주의를 지향한다.

근거한 종말론은 현실을 무시하는 초월주의나 이성주의 및 물질주의 세계관을 지양하고 건강한 현실주의를 지향한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공간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이미’와 시간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아직’이라는 이중적인 구원관을 제시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아들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심겨지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위’(above)로의 공간적인 이동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러한 공간이동의 구원이 ‘아직’이라는 긴장감 있게 시간적인 구원을 대망하게 한다.

그러나 구원사에 근거하지 않는 말세론은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 거하면서 천국을 기다리는 신앙구조를 갖게 한다. 이런 말세론은 세상과 삶에 대하여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 그 결과는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영광의 신학, 기복신앙, 번영신학, 세속주의, 개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의 결과를 양산하게 되는 오류가 있다. 오직 구원사적 성취에 바탕을 둔 종말론이야말로 건강하고 적극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구축한다.

(벧전5:10)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히1:1-3)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0. 구원사에서 시간의 끝인 ‘말세론’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
신바 된 공간이동을 근거로 한 ‘종말론’이어야 한다.

종말은 대단히 중요하다. 종말은 시간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이 운행하시는 역사 속에 가장 획기적이고 큰 일이 이루어진 순간을 의미한다. 하
나님의 구원사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을 부어주심이
종말론적 사건이었다. 곧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 기점이 되어 종말이 도입되었다. 그
러므로 시간의 끝을 강조하는 말세론이 아닌,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한 공간
이동이 근거가 된 종말론이 되어야 한다.

(엡2: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골3: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
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11. **구원사에서는 반드시 종말론은 구원론을 앞서야 한다.**

‘종말론’은 ‘구원론’을 앞서야 하고 ‘종말론’은 ‘구원론’의 근거로 작용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도입한 종말을 믿음으로 개인과 현재에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비유적 묘사가 아닌 실제적인 사건이다.

그러므로 구원에서 종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서 구원이 나와야 한다. 곧 부활이라는 종말론적 사건 안에 구원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전15:20)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구원사의 종말을 가져온 거대한 사건임을 알게 한다.

(고전15: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12. 타락의 결과가 아닌 창세전 하나님의 경륜이었다.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과 선악과 계명으로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생하도록 하심이 하나님의 창조경륜이었다. 이는 영생이 타락 이전에 이미 예고되었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영생은 타락의 결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창조경륜을 통해 계획하신 것이 분명하다. 타락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추방되었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있는 하나님나라에서도 추방되었다. 그 결과 영생 대신 사망과 죽음에 처해지게 되었다. 영생은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옴이며 하나님나라에 들어감이다.

(창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전3:11)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13. 인간을 창조하셔서 종국적으로 자신과 연합하기를 목표하셨다.

‘ ’이란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한 최상의 경지를 뜻한다.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통합도 함께 이루어진 것을 뜻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고 통합된 만유가 아들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였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심은, 그들과 영원히 연합하여 그들로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다. 아담이 언약을 지켰다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생을 누렸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허리 굽히심을 통해서 인간과 맺은 언약을 지킴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영원한 단계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방식을 통해서 인간과 피조물을 더 높고 완성된 생명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뜻이다. 또한 에덴을 위시한 만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렘50:5)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엡4:6) 하나님도 한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56:6-7)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14. ‘둘째 아담’에게서 받은 것은 ‘첫째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언약을 통과했을 때 얻게 될 최상의 상태를 말한다.

자신의 허리 굽힘을 통해 인간에게 베푸신 최초의 언약을 인간이 순종하므로 성취할 수 있었다면 인간은 완성됨을 향하여 나가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서 죄를 범할 수 없는 상태로 완성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치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을 파기하였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과 연합하시고 그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하셨다. 이는 ‘첫째 아담’이 에덴에서 어긴 언약을 ‘둘째 아담’이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둘째 아담’에게서 받은 것은, ‘첫째 아담’안에서 잃어버린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첫째 아담이 언약을 지킴으로 타락하지 않고, 완성되어 얻었을 최상의 상태를 말한다.

(엡1: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5. 땅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다.

연합은 뒤에 있는 ‘태초의 에덴’으로의 복귀가 아닌, 위에 있는 ‘하늘’로의 이동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원한 길이 열렸다. 이로써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

성도는 땅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골 3:1-5)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다(요17:21).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삼일 만에 즉시 부활하여 하늘에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성도가 땅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다.

보좌에 좌정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늘에 속한 공동체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로써 이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나라를 누리고 있다.

(골3:1-5)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4/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5/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요17:21)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16. 인성에 참여함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이다.

인성을 소유한 ‘둘째 아담’이 되신 것은, ‘첫째 아담’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과 연합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사역보다 우선적인 것은 신성과 인성이 통합된 그의 위격이다(고전15:47). 그리스도의 신인양성의 위격에 참여함 없이는 구원도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만 전가 받으면 되지만,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한 것이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구원사(historia salutis)를 완성한 이유는 그가 완전한 아담이 되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고전15: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17. 안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하나이었던 것처럼 하늘과 땅이 통합되었다.

부활하신 아들의 영인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땅에 있어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며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었다.

야곱의 사다리언약이 성취되어(창28:12)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으며(요1:51), 이제부터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뤄지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처럼, 하늘과 땅이 통합되었다(엡1:10).

(창28:12)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요1:51)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엡1: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8.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지상의 삶을 하늘에 속한 자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하늘에 속한자요 위로부터 난 자이며(요15:19),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고전1:30).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과 땅의 존재와 실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앓은 하늘에 속한 자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늘과 땅이 통합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책임 있게 사는 새로운 존재의 방식과 삶의 형태를 제시한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빛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했다는 엄연한 사실에서 출발한다.

(요15:19)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17:14)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9. **존재와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롬8:34-35). 인간에게 있어서 죄는 에덴에서 범죄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것이다. 그 사랑에서 두 번 다시 끊어지지 않도록 한 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영구적으로 임하게 하셨다.

(롬8:34-35)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20.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함과 완성함이다.**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 형상으로 창조한 언약 백성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시는 것이다(출19:5-6).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들과 참된 교제가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바라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함이 교회이다(고전1:9).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완벽한 교제를 지향하는 존재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출19:5-6)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고전1:9)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21. **목적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짐 받는 것과 함께 하나님과의 연합이 목적이다.**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목적이 라면 처음 에덴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러나 주께서 인간은 창조하실 때의 가지신 경륜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었고, 이 일을 위해서 성육신과 보좌우편에 좌정하시는 일과 부활하신 아들의 영이신 성령의 강림이 이뤄졌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적 개념으로 바꾸어 준다. 구원은 천국이라는 장소적 개념의 공간이동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바꾸어 준다. 미래의 장소적 개념의 천국은 현재의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연합의 결과로 가는 것이다.

(요14:20)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2. **부활하신 아들의 영을 받은 즉시 구원사에 참여하는 구원을 받는다.**

종말론과 개인의 구원론은, 우리가 부활하신 아들의 영인 성령을 받아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심어진 즉시 통합된다. 구원사적 종말론에 근거한 개인의 구원이야 말로 ‘건강한 구원론’이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된 칭의는 세상 끝에 있을 무죄의 선언을 현재로 가지고 온 것이다. 칭의가 구원사에서 분리되어 지극히 개인적인 의로움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구원사와 구원론은 분리될 수 없고 후자는 전자의 열매다.

(롬8:29-30)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은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3. '옛 에덴'으로의 복귀가 아닌 '새 에덴'으로 올라간 것이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과 제사를 드리고, 부활하신 것은 '옛 에덴'으로 복귀한 것이 아니라 '새 에덴'으로 올라간 새 공간으로의 이동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위로 올라간 것이 구원이며 하나님과 연합한 성도의 종말론적 모습이다. 말세와 종말의 의미가 다르듯이 최후와 최상은 구별된다.

(빌3:20-21)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24. **종말은 최후가 아닌 최상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포이에마이다.**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포이에마(poima, 걸작품)’가 되었다. ‘마지막 아담’ 안에서 새로 지음 받은 창조물이 되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나 마지막이란 말은 최후의 뜻이 아닌 최상이라는 뜻이다. 마치 말세와 종말의 의미가 다르듯이 최후와 최상은 구별된다.

‘포이에마’는 성도가 가장 높은 완성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 받은 것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하늘에 앉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최상의 작품’이 되었다.

(고후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5. **죄 중심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 중심의 역사이다.**

의미로써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믿음을 앞선다. 믿음은 통로이고 사랑은 목적이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언약을 성취하셨다. 이는 구원사의 성취이며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종말론적 사건이다. 구원은 개인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피조물에 속하는 것이다.

보수신학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세상 역사를 죄 중심의 역사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죄가 구원 드라마의 중심주제가 되면 안 된다. 구원사와 종말론에 근거한 역사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에 있다.

(요일4:8) 사랑하지 아니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26. 그리스도께서 역사가운데 오셔서 단번에 성취하신 구원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처음 예상한 것보다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류역사의 구원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구원사에서는 구원을 디데이(D-day)와 브이데이(V-day)로 나눌 수 없다. 이는 오스카 쿨만의 종말에 대한 이해의 빈약함이다.

도리어 구원사는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오셔서 단번에 성취하신 구원을 가리킨다. 즉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단번에 부활하셔서 하늘성소에 들어가셨으며 단번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객관적 구원의 성취를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미 확정된 구원과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마무리 하는 수준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만유에 남아 있는 죄의 오염이 제거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육체적인 부활이 이뤄지면 하나님의 창조경륜이 완성된다.

(벧전3:18)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써 불의한 자를 대신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27.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드리신 것은 영원한 제사였고, 영원한 언약의 성취였으며, 그가 들어간 하늘의 성소는 하나님 나라의 지성소였다. 그리스도는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보좌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의 창조경륜을 완성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구원사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히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사 단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8. **창조의 회복과 완성이다.**

‘ 아담’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만물이 통일되어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하고 ‘새 한 사람’ 곧 ‘새로운 피조물’이 시작되었다(고후5:17). 구원의 서정은 그리스도가 승천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고 통일하신 만물의 새로움에 그리스도인들을 참여시킴이다.

구속사적인 구원관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역사의 구원이 먼저 있고, 이 역사의 구원에 개인을 참여케 하심이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 만물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구원은 창조의 회복과 완성이다.

(고후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9. **부활은 새로운 세계의 창조이다.**

카이로스의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로노스의 시간 속으로 진입한 것이다. 신약성경에 나타난 종말은 시간적인 말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된 새 창조를 말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새로운 존재로의 부활 뿐만이 아닌, 새로운 세계(카이네 크티시스)의 창조이다.

(막1: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30. **구원사에서 주관적 구원론이 비롯된다.**

구원의 적용에 앞서 단회적인 구원사의 성취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나무의 뿌리와 줄기의 관계성과 같다. 뿌리가 있어야 줄기가 있는 법이다. 즉 객관적인 구원사의 완성이 주관적인 구원의 적용과 경험의 기초가 되었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세워지고 그 나라에 참여함이 개인의 구원이다. 구원사의 성취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 만물이 통일된 구원의 대 서사(Narration)이며 공공성의 선포이다(막1:15).

(막1: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31.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사의 성취는 계시사의 종료와 일치한다.**

성취는 계시사의 종료와 일치한다. 구원사와 계시사는 하나이다. 이 둘을 분리할 수 없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계시자로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과 보좌에 나아가심으로 신구약 정경도 닫혔다. 그리스도 이후에는 구원을 위한 새로운 계시가 필요치 않다. 주께서 그의 사도들을 부르셔서 마지막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다.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에 오신 부활하신 아들의 영인 성령을 말세에 부어주신 것은 구원사의 성취와 동시에 신구약 정경의 완성을 의미했다.

(히1:1-2)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리델보스(H. Ridderbos)는, 십자가와 부활 중심의 구원사를 중시했던 종교 개혁세대와 달리 현대의 신앙은 경건주의, 신비주의, 도덕주의 영향을 받아 개인주의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구원사 중심에서 구원론 중심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구원에서 종말로 가는 것이 아닌, 종말에서 구원을 정의해야 한다.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종말론적 사건 안에 구원이 포함되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고전15:20)이다.

(고전15: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33. 수평적으로 구약의 완성이며 수직적으로 하늘모형의 완성이다.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하나님나라에 앗힘을 받은 것이다(엡2:6). 즉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는 즉시 이미 하나님나라의 공공의 영역에 들어감을 의미한다.

신약은 수평적으로 구약의 완성인 동시에 수직적으로 하늘 모형이 완성된 것이다. 구약의 성막은 하늘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였다. 구원사의 성취로 그리스도가 하늘성소에 들어가신 것은 구약의 성취이고(히8:5), 하늘의 형상의 완성이며,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다.

(히8:5)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히9:23)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찌니라

(히10:1)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34. **부활은 시간의 발전이 아닌 시간의 전복이다.**

 쿨만은 그의 저서 “그리스도와 시간”에서 십자가와 부활은 시간의 발전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시간의 전복을 가져왔다고 했다. 구원사의 중요성은 구원의 견고함이 인간의 경험에 있지 않고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그 언약의 실행에 있다.

 구원사와 구원론은 분리할 수 없는 뿌리와 열매의 관계다. 나무의 뿌리가 깊고 튼튼하면 가지와 열매도 굵고 풍성하듯이 부활로 하늘에 간직한 구원이 땅에서의 소망을 지키고 보호해 준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신 성령과 믿음으로 연합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한다.

 (빌1:6)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35. 구원사의 적용이다.

신학과 정통주의 신학의 오류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리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대속과 칭의를 위한 수단, 부활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분리한다는 뜻이다. 이는 십자가는 지금, 부활은 나중에 필요한 것이 되어진다. 무의식적으로 구원의 현재와 미래를 반씩 나누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구원은 구원사의 적용이다. 구원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성취된 일회적인 사건이다. 부활하신 아들의 영인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된 새로운 창조를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인치 신다. 즉 구원사적 성취를 받아 구원론적 적용을 하신다.

(엡1:14)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그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하늘에 앉는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즉시 누리게 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세에 있을 성도부활의 샘플(Sample)로만 생각하는 전통적인 신앙방식은 제고되어야 한다. 도리어 십자가와 부활은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구원의 단회적 성취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둘째 아담과의 연합을 이루는 세례이다.

(롬6: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37. **중심의 대속교리에 집중함은 구원론의 균형을 상실케 하는 위험이 있다.**

후대가 구원사와 구원론의 균형을 상실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의 초점을 십자가 중심의 대속 교리에 집중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복음을 “나를 위한”(for me) 개인주의적 성향을 띄게 했다.

구원이 구원사에서 분리되는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개인의 구원을 위한, 심하게는 “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사 자기를 찬송하는 백성 삼으심이 창조경륜의 목적이었다.

(롬14: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38. **근거한 구원론이 인간위주의 구원론의 위험을 해결할 수 있다.**

측면에서 볼 때에 지상의 교회는 땅에 속하지 않고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된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현재와 미래의 두 사건으로 분리한다면 성도는 현재 구원을 받았더라도 여전히 땅에 속한 사람이 되고 죽어서 천국에 가야 드디어 하늘에 속하게 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땅에서 얻은 구원을 하늘에 갈 때까지 지켜내야 하는 인간위주의 구원론이 된다.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하늘보좌에 좌정하실 때에 함께 하늘에 앉히심바 되었다.

(엡2: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39. **얹은 관점에서 땅의 체험을 해석하여야 한다.**

아직 땅에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일으킴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좌정한 자가 되었다. 이제는 하늘에 얹은 관점에서 땅의 체험을 해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땅에서의 성화는 하늘의 칭의와 생명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함께 보좌에 좌정함은 구원의 전부를 얻은 것이다.

(골3:1-5)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4/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5/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40.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를 재해석해야 한다.**

십자가를 죄의 대속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지 않는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이루어 오신 구원사를 간과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우리로 악한 세대와 지금 세대에 대하여 죽고 “오는 세대”와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는 방편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회장이 찢어짐의 의미는 속죄를 통해 우리를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히9:11-12)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염소와 황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41. **연합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이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 (롬8:32)이 구원사적 해석의 핵심이다.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로움과 거룩함을 동시에 얻었고(고전1:30), 하나님의 맏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으니 만유를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이다(롬8:17).

(롬8: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롬8: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고전1:30)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 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42. 전 과정은 하늘에서 시작되고 보증된다.

함께 죽고 일으킴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전 과정은 땅이 아닌 하늘에서 시작되고 보증된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성화의 당위성과 명령은 부활과 승천의 결과인 것은 분명하다. 땅에 속한 사람에게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요청이기 때문이다. 땅에 속한 사람에게는 성화의 동기와 동력이 없다. 그러나 하늘에 앉아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땅의 것을 내려 놓을 수 있다.

(골3:5)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엡2: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43. **완성은 종말론이다.**

패커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연구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지루한 일이 아니라 “가장 실용적인(most practical)” 일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영국과 영어를 전혀 모르는 아마존 밀림의 원주민을 비행기로 태워서 런던의 중심에 아무 설명 없이 내려놓고 간다면 그것처럼 가혹한 일은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에 대하여 모른다면 실로 가혹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실용적인 필요성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성경적, 언약적 의미로써 ‘인식론(= Epistemology)’의 완성은 종말론이기 때문이다.

(요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44.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다.**

죄 사함을 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지옥이다. 자기의 형상으로 지은 여호와를 힘써 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목표이다.

히브리어 동사 ‘야다’는 ‘안다’는 뜻과 ‘동침’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히브리인들에게 아는 것과 단지 지식적인 정보만이 아닌 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한다. 하나님에 대한(about) 많은 지식보다 하나님을(of) 아는 약간의 지식이 더 가치 있다.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언약적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과의 연합은 언약적 관계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호6: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45.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형성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연합하는 것이며(요17:3),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구원은 장소와 소유가 아닌 하나님과 언약적, 인격적 관계를 가리킨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지음 받았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지음 받았다. 무엇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다.

(요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46. **전유적 속성과 유비적 속성을 가지셨다.**

무소부재, 전지전능성, 자존성, 불변성, 영원성은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성이다. 이를 전유적 속성이라 한다. 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반사되어 나타나는데 이를 유비적 속성이라 한다. 또한 전유적 속성은 구별을, 유비적 속성은 유사성을 의미한다.

(엡4: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47. **구원으로 하나님의 존재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나님의 둘째 위격인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고난 받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은 부활의 몸이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방식에 추가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로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방식에 위대한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인간이 삼위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기 위해 성자는 땅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인성을 유지하신다. 따라서 성자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택하신 방법이다. 하나님의 신성은 본질상 변함이 없지만 존재 방식에는 변화가 생긴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일체로 존재하시던 하나님의 존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리고 아들 안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삼위의 구조가 되었다.

(요17:21)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서 있는 것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48.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육신이 발생했다.**

연합하여 일으킴을 받은 성도가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성자께서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인성의 기능은 대속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승천까지 이어진다. 그리스도가 가지신 인성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생명이다.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방식에 성자의 인성을 포함시킨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인간과 공유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성을 가진 존재가 되어 이루실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다.

(히6:19-20)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20/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요17:24) 아버지여 내게 주신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전3:1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성을 갖고 부활하신 것은 구원사적 성취이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부활하신 아들과 연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유비적 속성이 완성되게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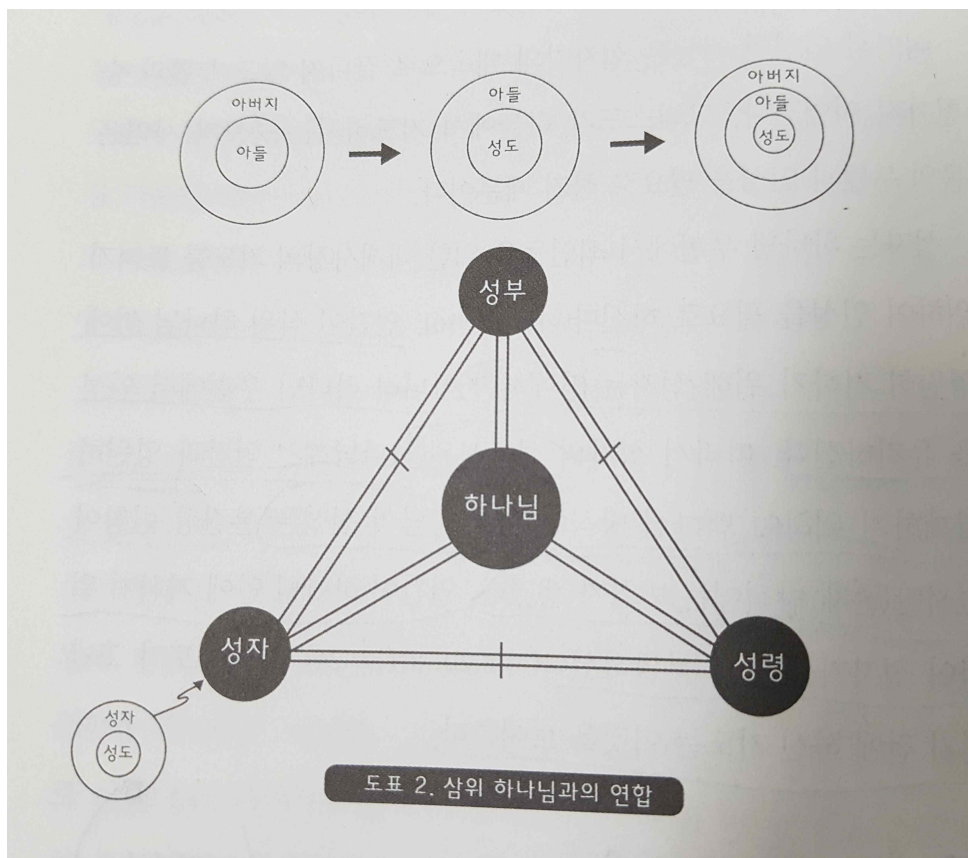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과 일으키심을 받아 하늘에 앉히심을 받은 것은 대속의 용서와 동시에 피조물의 완성을 위함이다.

(롬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50. 창조경륜은 자기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누리게 하심이다.

대제사장적 기도의 핵심은 자기백성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누렸던 영광과 사랑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이다.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은 곧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다. 이로써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아버지 안에서 누리신 영광과 사랑을 그리스도인들도 누리는 것이다. 이는 삼위의 존재구조에 변화가 있게 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의 존재구조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리고 아들 안에 교회’ 라고 설명해야 한다.

(요17:12)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50.

입으신 인성은 신성과 함께 영원하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대속과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육을 입으신 것은 놀라운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나뉘거나 분리되거나 섞이거나 혼합되지 않는 존재’로 존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의 사역을 위해서만 아니라 천상의 사역을 위해서 신성과 인성을 영원토록 유지하신다.

(빌2:6-8)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51. 아들과 같은 자녀들을 창조경륜으로 원하셨다.

보스는 ‘언약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보다 먼저 삼위 하나님 내부에서 자발적인 참여로 존재’ 했음을 지적한다. 하나님이 언약적 방식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것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의 자녀들을 예정한 것은 아들을 닮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언약적 자녀들을 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의 삼위 공동체적 모형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자녀들을 계획하셨다.

(엡1:4)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2.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상호 맺은 언약이다.

창세전에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시는 삼위하나님께서 상호 맺은 언약에서 시작되었다. 창세전의 예정은 사변적인 추론이 아닌 삼위 하나님의 인격적 언약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의 삼위가 창세 전 영광과 사랑으로 피차 언약한 것이 창조경륜이고 그 창조경륜의 완성이 하나님나라이다.

하나님의 창조경륜의 목적은 그의 자녀된 우리로 영광과 사랑의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다. 바울사도는 이 일을 창세전에 감취졌던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였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은 때가 차서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늘의 비밀이 땅에서 성취되어 땅과 하늘이 통합된 사건이었다.

(골1:26-27)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2:2)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53.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함은 구원이 언약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다. 이는 구원이 삼위 하나님의 언약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하늘의 참 형상이 땅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를 성취하셨다. 이에 교회의 복음전파와 세례와 성찬의 진정성과 영원성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삼위하나님의 언약이 보증한다. 그러므로 성례와 함께 실시되는 모든 은혜의 방편들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언약의 선포이다.

(요18:9)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 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히10:1)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으니라

55. **하나님과 인간의 종말론적 관계를 잘 설명해 준다.**

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서로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언약적 관계는 서로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야말로 하나님과 인간의 종말론적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해 준다.

(시22:27-28)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재이심이라

칼빈(John Calvin)은 부활을 ‘하나님과 연합’ 이라고 했다. 부활은 영원한 언약적 연합의 영광스러운 시작이다. 구원과 완성은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영광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창조의 완성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구원의 종착점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이다.

하나님은 천국이라는 장소가 필요한 분이 아니며 특정한 장소에 구속되는 분이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연합된 곳이 천국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이 성취된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 부활하신 아들의 영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한다.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닌 관계적 생명의 개념이며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영생은 긴 생명이 아닌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말한다.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이며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죽음이다. 믿는 자는 부활하신 아들의 영이신 성령으로 이미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들이다.

(요6:47)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골3:3-4)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4/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관점에서는 창조와 타락은 구원의 발판 역할로써 족하다. 하지만 구원 사적 관점에서 구원은 창조의 회복과 완성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창조를 폐기하지 않고 회복하고 완성한다. 창조와 구원은 연속적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진정한 새 것” 이지만 전혀 다른 것은 아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문자 그대로 ‘새로움’ 그리고 ‘피조물’ 이다. 달리 말하면 창조를 초월한 것이면서 동시에 새롭게 하는 연속성이 있다.

은혜와 죄는 적대적이지만 은혜와 창조는 그렇지 않다. 은혜는 창조를 새롭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를 버리지 않으신다. 물질을 천하게 여기는 것은 플라톤 철학이지 기독교 신앙은 아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와 물질 세계를 회복하고 완성한다. 은혜의 복음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계시한 것처럼 하나님은 땅의 육체를 폐기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셨다.

(벧후3:12-13)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58. (일반은총)과 은혜(특별은총)는 대립하지 않는다. 죄가 악할 뿐 물질은 악한 것이 아니다.

진입과 피조물의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경륜을 거역한 것으로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죄에서의 구원은 특별은혜의 영역이다. 구원사에서 특별은혜인 구원의 은혜와 보편적 은혜인 일반은혜의 구별이 필요하나 종국적으로는 두 가지 은혜가 하나이며 하나님의 은혜일뿐이다. ‘흠에 속한 형상’이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변화된 것은 형체가 본래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로 인해 부패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범죄로 시작된 자연과 은혜의 대립은 성령과 물질의 대립이 아닌 죄의 지배와 영향을 지칭하는 육신과 성령의 대립을 말한다. 물질은 악한 것이 아니고 죄가 악한 것이며 물질이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대적한다.

(고전15:49) 우리가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롬8:5-7)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59. **회복과 영혼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이원론은 비 성경적이다.**

하나님에 대한 두 종류의 지식이 있다. 하나는, 인간과 자연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창조자로 아는 일반계시이며, 또 하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구원자로 아는 특별계시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땅과 하늘이 통합될 때 특별계시와 일반계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도 되신다. 만물의 회복과 영혼의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동시에 만물의 으뜸이라는 것은 구원사적 성취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원론은 비 성경적이다.

(골1: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60. **구원은 영과 육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러지는 전 인격적인 열매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한 기능은 잃게 되었고 자연적인 구조만 남았다. 곧 본질은 남았지만 방향은 상실한 것이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언약적 기능은 상실하고 육신과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조명령을 수행하면서 물질적 생활을 위한 자연적 구조만 남았다.

은혜가 자연을 회복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조가 방향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죄와 타락은 창조의 방향을 잃는 것이지 창조를 폐기 처분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은혜가 자연을 폐기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온전한 구원은 영과 육이 모든 거룩한 산제사로 드러지는 전 인격적인 열매다.

복음은 육신의 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 주는 하나님나라의 기쁜 소식이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비관적인 것과 창조에 대하여 비관적인 것은 구별해야 한다. 근본주의 신학에서는 죄와 창조를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므로 기독교 이원론을 조장해 왔다.

(롬8: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롬11: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61. 범죄와 타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악화시켰으나 인간존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다.

범죄하고 타락하므로 하나님을 관계적인 의미에서는 떠나게 되었다. 즉 인간의 범죄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이다. 그것이 심판이었고 사망이었고 죽음이었다. 그러나 비록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범죄 했으나 존재론적 의미에서는 독립 할 수 없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범죄 한 아담과 화해를 찾아 내셨다. 이는 인간이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회복하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하였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다.

(롬5: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써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62. 자기 나라로 창조하심이 하나님의 창조경륜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은 세상나라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였다.

창조경륜은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그의 나라로 창조하심이다. 곧 만유를 천국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천국이다. 인간의 범죄는 만유가 하나님나라가 되는 것을 방해했다. 하나님의 구속경륜의 성취인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구속의 결과로 세상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되었고 완성되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미 들어갔다.

(고전15:47-49)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같이 또한 형상을 입으리라

63. 아담과 맺은 언약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의 진정성만큼이나 진정성이 가득한 언약이었다.

방식의 자발적 행동은 창세전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내부에서 시작되었다. 성자께서 창조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중보자가 되셨다. 인간이 타락 한 후에는 성자께서는 자발적인 순종과 피 흘림의 사랑으로 언약을 성취하실 구원의 중보자 되셨다. 그러므로 구원의 목표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을 위한 언약적 인간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아담은 선하게 창조되었고 죄를 짓도록 지음 받지 않았다.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다음 단계를 위해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와 진정성이 가득한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타락할 자로 계획했다면 언약의 진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리델보스(Ridderbos)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이라고 한 것은 아담을 염두에 둔 것’ 이라고 해석했다. 신약성경에서 두 아담을 비교하는 것은 아담언약의 진실성을 반증한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이 진실한 만큼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아담언약도 진실한 것이었다.

(골1:15)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나신 이
시니

64.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아담이 실패한 언약을 그리스도가 성취함으로 이를 입증했다.

창조경륜은 아담과 피조물의 완성을 목표하고 있다. 자연히 종말론적 완성을 위하여 지음 받은 아담과 피조물의 운명은 연계되어 있었다. 그것은 아담이 순종하면 피조물 모두가 살고 불순종하면 모두가 죽는 연대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와 교회, 아담과 인류, 아담과 피조물은 언약적 연합의 관계였다.

아담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관계를 암시하는 언약이다. 아담이 실패한 언약을 그리스도가 성취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적 관계가 영원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리스도는 아담처럼 되셔서 아담이 못 이룬 일을 친히 이루셨다.

(창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롬5:18) 그런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것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65. 선악과를 통해 아담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려는 신실하고 성실한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배제하게 되면, 아담은 단지 세상을 죄에 빠트린 인물이며 인간을 지옥에 가야 하는 존재로만 이해한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도 죄인을 천당에 보내기 위해 오신 분으로만 보게 된다. 이는 심각한 신학적 오류이다. 도리어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주된 목적이었다. 복음이 장소에 대한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인간성의 회복임을 아담의 존재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아담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그와 진실하고 성실한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시험이 아니라 복이다.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 안에서 교제케 하는 복이었다. 아버지 품속에 독생 하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은 것이 그것을 보여준다.

(마26:28)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66. 인간을 언약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언약을 통해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귀하게 여기신 최고의 찬사였다. 그래서 복음은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었다(벧전1:12).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며 완전하고 개인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으로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있게 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방편이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은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게 되었다. 타락이전과 타락이후 모두 언약적 방식으로 관계가 표현되었다.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한 방법만이 아니라 오리지널 상태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하는 방식이 언약이었다.

(고전15: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67. **주신 형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구원사적 목표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받았지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된 형태는 아니었다.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은 영생을 위한 언약적 순종을 통해서 풍성한 단계에 이르도록 계획되었다. 그리스도의 순종에서처럼 아담은 언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발성 있는 순종을 통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형상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아담은 언약을 파기함으로 실패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영원한 언약으로 자기 백성과 연합하는 것은 구원사적 목표이다.

(렘50:4-5)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 날 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께 여호와를 구할 것이며 5/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68. 언약은 구원이전에 인간됨의 요소이며, 인간론과 구원론은 분리할 수 없다.

구원 이전에 인간됨의 요소이며 더 깊게는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심은 인간과 연합하기 위함이다. 구원사적 관점에서 인간론과 구원론은 분리할 수 없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연계점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속성의 일부를 인간과 공유하셨고, 구원의 목적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인간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인간과 공유하심이다.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가 가지신 인성 때문이다. 피조물인 인간은 신성과 연합할 수 없다.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들이 육신이 되어 인성을 갖고 오셨기에 연합이 가능해 졌다.

(골1:15)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요10:3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율법에 기록한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69. 목표는 죄의 용서와 심판을 면하는 것만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다.

대속의 죽음을 믿어서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음이 구원의 한 측면이지만, 구원의 큰 목표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만아들을 본받는 것이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가운데 흠이 없고 거룩한 자녀로 예정하신 것이 성취되었다. 구원은 죄의 용서와 심판을 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였다. 구원사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행위적인 의의 전가만이 아니라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만아들” 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의 영을 받았다.

(롬8: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엡1:4)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70. 목표는 마지막 아담처럼 새 아담이 되는 것이다.

놀랍게도 ‘한 새사람’ 이다. 만아들의 형상을 나누어 받은 가족공동체이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류가 태어난 것이다. 부활하신 아들의 영인 성령을 받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에 앉힘을 받아 새 피조물이 되었다.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새 피조물이 즉시 된다.

(엡2:15)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사람을 지어 화평하게하시고

(골3:1-2)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71. **초점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완성이다.**

복음의 초점이 되면 안 된다. 도리어 복음의 초점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완성이다. 원죄가 복음의 초점이 되면 아담은 단지 무고한 인류를 저주의 비극으로 몰아넣은 무책임한 조상이 될 뿐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나쁜 본보기가 될 뿐이다.

하지만 복음의 목표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완성이라면 아담은 종말적 인간의 모형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와 언약을 맺어 그 형상의 완성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첫째 아담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셨다.

(롬5:14)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72.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공유한 자녀들과의 교제이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공유한 자녀들과 사랑가운데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교제를 모델로 세우셨다. 하나님은 사역을 위한 종이 아닌 교제를 위한 자녀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과 선악과 계명으로 언약을 맺으신 까닭은 교제하는 자기 백성을 세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많은 일보다도 믿음을 기뻐하신다(요6:28). 언약과 구원의 성취와 완성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에 이름이다.

(요6:28-29)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일1: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73. 해석에 바탕을 둔 기독교론이 구원론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다. 이러한 기독교론이 구원론의 근거가 된다. 구원사와 기독교론에서 분리된 어떤 구원론도 존재 할 수 없다. 현대 기독교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신앙 등의 기형적인 구원론은 구원사에 기초한 기독교론을 이해하지 못한 기독교론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 그런 복음은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고 사후에 천당에 가는 것이 전부이다.

반면 기독교론에 근거한 복음은 그 복음을 받고 믿는 즉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부활하신 아들의 영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완성이 이뤄진다. 이는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즉시 일어나는 전격적인 변화이다.

(롬8: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74. **목적은 하나님의 자기향유를 위함이다.**

사역은 창조, 섭리, 구원, 창조의 완성으로 이루어진다. 그 중 창조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역이 아니다. 창조가 필연적이면 하나님과 세계가 일치되고 창조가 하나의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유출이 된다.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이다.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의 현시이므로 창조를 기뻐하시고 즐기신다. 하나님은 자기 향유를 위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셨다. 창조를 다스리심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창조를 즐기심이다. 창조의 자기 향유가 우주 창조의 목표이다.

(골1:16-17)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75. **부정적인 요소인 죄에 대한 해결과 긍정적인 요소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있다.**

중심주제는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이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다. 구원사에 근거한 구원은 부정적인 요소인 죄에 대한 해결과 긍정적인 요소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동시에 이루는 것이다. 성경은 죄의 비극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탄과 죽음이 구원사의 무대중심을 차지하도록 놔두지 않는다. 구원사의 알파와 오메가는 삼위 하나님이며 창세전에 계획된 삼위가 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만물이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세상을 향해 구원사의 그 장엄한 스토리는 진행된다.

구원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간의 죄와 사망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나라의 영광스러운 완성으로 종결된다. 그러므로 구원조차도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초점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계22: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롬11: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롬5:1-4)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앎이로다

76. **하나님과 연합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자로 느끼는 신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순간 하나님과 연합을 위한 존재임이 이미 예고되었다.

그리스도가 성취한 영원한 언약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수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회복하는 연합의 완성에 그 목표가 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야 했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다시 인간과 연합 하실 것을 예고 하셨으므로, 이 구원이 인간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뤄질 것을 말씀하셨다.

(요17:21)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77. 선악과 계명을 통해 아담과 맺은 언약은 진실하고 신실한 언약이다.

순종과 불순종,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다. 하나님께 사랑의 언약은 인간의 자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존귀하고 값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선악과 언약을 맺으심은, 불가능한 순종의 요구로 아담을 시험하고 곤경에 빠트린 것이 아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실하고 신실한 언약을 어겼다. 마치 남녀가 결혼하여 평생을 함께 지낼 것을 다짐하여 맺는 아름다운 언약인 백년가약과 같은 원리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언약을 맺으셨다.

(호2:16-2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9/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 들며 20/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엡5:25-27)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6/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78. 사람을 자기자녀와 백성으로 삼기 위해 언약을 맺으셨다.

 사람을 자기 자녀와 백성으로 삼기 위해 언약을 맺으셨다(창2:15-17).
하나님은 인간으로 창조주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선악과 계명으로 언약을 체결하
셨다. 선악과계명으로 언약을 체결하신 것은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곧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
는 것을 악으로 정하셨다. 하나님을 섬김이 선이므로 생명에 이르게 하고, 섬김을
거부한 것을 악으로 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

 첫째 아담은 계명을 어김으로 언약을 파기했고 그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둘
째아담은 계명을 준수하여 순종함으로 언약을 성취하여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롬5:19)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79. **완성될 때 까지는 구원사와 피조물이 보편은혜의 언약으로 보호를 받았지만 보편은혜는 한계가 있다.**

완성될 때까지 피조물과 구원사는 보편은혜의 언약에 의해 보호받고 지속되었다.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언약적 능력은 상실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구조적 흔적은 남아 있었고,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구조적 흔적이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보편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었다.

피조물을 위한 일반적 은혜 곧 보편적 은혜는 피조물을 보존하게 했지만 인간의 영혼을 채워주지는 못한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배고프고 목마른 존재로 살아간다. 창조계시로 구원자를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일반은총으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언약의 성취인 구원사로 인하여 인간은 참된 만족과 행복에 들어간다.

(요4:13-1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14/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80. **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닌 존재적이며 관계적인 문제이다.**

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닌 존재적이며 관계적이고 언약적인 문제였다. 죄는 율법의 위반이지만 추상적인 법률의 위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부인하는 관계성의 문제였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허리 굽힘을 통해 선악과계명으로 맺어주신 사랑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 인간의 죄였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언약을 성취하시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갈3:17)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고전15:21-22)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81. 의식은 인간론의 바탕이 된다.

안에 있는 신 의식은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이다. 마음 밖에 깔려있는 신 의식은 인간론의 바탕이 된다. 인간 안에 본능적, 내부적 장치는 복음의 변증과 전파를 위해, 인간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는 원칙적이고 희망적인 정보이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신 의식은 독특하게 언약적 용도가 있다. 즉 인간의 영적인 필요와 욕구는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동시에 성취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취해 주신 그리스도이시다.

(약3:9)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요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82.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신 의식을 의존하지 않는다.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아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면전에 있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존재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자신 안에 남아있는 “신 의식”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지 않아도 된다. 여전히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태도는 비 성경적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해 아들 안에 거하게 되었고, 아들과 함께 아버지 안에 있는 자들이다.

(3:1-4)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4/우리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83. **장소적인 의미가 아닌 인격적인 연합이다.**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구원론과 종말론적 의미가 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이라는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아버지와 연합이 되고, 지옥에서 구출된 것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자기 나라로 창조하시고, 그 나라의 회복과 완성은 구원사의 성취이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장소개념이 아닌 통치개념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다.

(롬8:15)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84. **의식으로 만나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더듬어 찾는 인간의 본능적인 신 의식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인 동시에 불순종에 대한 경고다. 신 의식에 의해 더듬어 찾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심판자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앞에 서게 된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 이시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하늘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인 시온산에 있는 자들이 아닌, 하늘성소의 본체인 시온산에 서있는 자들이다(히12:16-24).

(요15: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 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히12:22-24)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23/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4/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85. **언약적 존재이다.**

철저하게 언약적 존재다. 언약은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을 발동한다.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인해 함께 있을 수 없을 때에도 언약적 존재로 연결되어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형이상학적 의존성은 죄에 의해 지워지지 않았다. 거짓 종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막을 수 없는 대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수록 의식이 더 분명해 지고 잊으려고 하면서 그리워하는 것과 같다. 탕자의 영혼과 의식 속에 아버지의 존재는 간단히 지워 버리기에 너무 큰 존재로 남아있다. 밧데리가 소진되어도 내장된 메모리 안에는 핵심정보가 살아있는 것처럼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어도 영혼에 각인된 신 의식은 살아서 하나님에게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롬1:19-21)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21/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어졌나니

86. **의식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닭았으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 실존의 불행과 슬픔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도덕적으로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에서 구조적으로 끊어질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신 의식은 영혼을 억압하거나 종속하는 의식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아버지 사랑의 증거이다.

 (롬1:19-20)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87. **형상은 언약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바탕이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피조물의 언약적 관계를 형성하는 바탕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인간은 언약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다.

(창9:6)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성전을 예비하셨다. 인간에게 필요한 성전은 창조에 속한 일시적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유가 그의 성전이고 성소이다. 아버지 품속에 독생 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만유 안에 오심으로 자신의 성소를 회복하셨고, 구속의 결과로 교회로 자기의 성소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성도가 성령에 의해 거듭난 순간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하나님의 참 성소인 교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다윗언약은 땅의 일시적인 왕국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왕국이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건축 제안을 거절하신 것은 다윗언약의 기능과 역할이 땅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구원사의 발전 과정 속에서 다윗과 다윗언약의 역할은 만물이 통합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씨를 통해 올 것을 계시하는 것이었다.

(히9:11-12)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9:24)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89. 모든 언약은 아담에게 주신 은혜언약(창3장15절)의 다양한 형태로의 나타남이다.

많은 언약들은 통일된 하나인 은혜언약인 창3:15의 언약이 구원사적 발전 과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언약으로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은혜언약인 아담언약이 발전하여 노아언약, 아브라함 언약, 유다언약, 야곱언약, 다윗언약, 솔로몬 언약, 선지자 언약으로 확대되어 성취되어 왔다. 이러한 언약의 성취가 복음이다. 복음은 에덴의 실패를 새 에덴의 성취와 완성으로 나타낸다.

(창3:15)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90. **통합된 신인양성은 구원사의 성취이다.**

‘ 누구인가?’를 묻는 것은 구원사적이고 종말론적인 질문이다. 신성과 인성이 통합된 그리스도의 위격과 신분이 종말론적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창조경륜의 구원사적의 성취이고 완성이다.

(1:3-6)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91.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사에 참여함으로 가능하다.**

오심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역사와 만물의 새로운 분기점을 의미하는 하나님나라의 사건이다.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사에 참여함으로 가능하다. 즉 후자가 전자를 가능케 한다는 뜻이다.

구원은 결코 개인적일 수 없다. 도리어 부활하신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개인에게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개인을 넘어서는 하나님나라와 교회와 종말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1:13-14)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92.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안다는 것은 연합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므로,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에 거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고상하다. 그리스도는 단지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종말론적 사건이다.

(요6:29)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롬6:3-5)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5/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93. **인격과 사역은 창조경륜의 성취와 완성이었다.**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육신과 세상의 모든 자량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인 인격은 나눌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위격은 모두 창조경륜과 창조언약의 성취를 위해 필요하다. 이는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중보자께서 친히 그가 행하신 사역을 통해 만물의 으뜸과 머리가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골2:2-3)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94.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언약적 구원이다.**

위한 대속적 구원과 하나님과 연합을 위한 언약적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었다. 전자는 후자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죄인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먼저 대속적 구원을 받아야 하고, 동시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 거하므로 이뤄지는 언약적인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그와 연합하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의 창조경륜의 최종목표는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었다.

(요17:23)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95. **구원과 창조의 완성은 하나이다.**

창조의 회복과 완성이므로 그리스도는 구원의 완성과 함께 창조의 완성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의롭게 하심과 동시에 처음 피조물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구원과 창조의 완성을 이루어 하나님과 인간을 영원한 언약으로 연합하게 하셨다.

(요17:24) **내게 주신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96.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는 것이 창조경륜의 본질이다.

사람인 아담이 추방되고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 나라와 하늘의 성소에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가 들어가셨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뒤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하늘로 올림 받는 사건이다. 신성과 인성의 양성을 소유한 그리스도가 성취한 사역을 혜택으로 받는 것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는 것이 창조경륜의 본질이다.

(고전1:30)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바 자랑하는 자는 주안에서 자랑하라

97. ‘ 위한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였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되셨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그와 연합한 성도 역시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새 창조에 참여한다.

 구약은 ‘주 함께’의 시대라면 신약은 ‘주 안에’의 시대이다. 즉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신 은혜 언약안에서 자기 백성과 동행해 주셨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성막과 성소를 통해 자기백성과 함께 하셨다. 그러나 신약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자기 백성을 성전삼아 그들 안에 계신다.

(롬6:3-5)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5/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98.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테텔레스타이’는 하나님의 창조경륜의 목적에 대한 실현 선포이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다. 이는 단순히 선지자들의 예언이 실현되었다는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경륜이 성취되었다는 뜻이다. 구약의 예언이 현실이 된 것이고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가 하늘의 본체로 완성된 것이다. 또한 시간적 의미의 실현이 아니라 종말론적 의미의 성취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자기와 함께 세상도 못 박히는 종말론적 사건이다.

(요19: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갈6: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99. 십자가로 하늘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를 본체로 완성하셨다.

성소와 제도는 참 형상이 아니었다. 도리어 앞으로 완성될 하늘성소의 모형이었고 그림자였다. 실체가 없으면 모형이나 그림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곧 그림자가 실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그림자를 만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약의 실현인 동시에 하늘의 모형이 하늘의 본체로 완성되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하늘성소의 본체가 완성되었다.

(히9:23)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 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역사를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눈다.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한 역사의 분기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을 바꾸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는 순간 역사와 세계가 뒤집혔다. 예정에서 영화까지 전 과정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만물의 시작과 끝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 온 것이다.

부활은 단지 말세에 있을 사건이 아니라 말세의 사건이 현재가 된 것이다. 부활은 수평적인 시간의 개념이 수직적인 것으로 바뀐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은 즉시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신비한 실재를 만든다.

(골1: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땅의 크로노스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종류의 시간 개념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앞에 있음은 영원한 새로운 시간 속에 들어감을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삼위가 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이미 있었고, 그 언약이 그리스도와 합하는 순간 성취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하늘 앉음으로 하나님나라와 영생의 시간에 들어갔다. 곧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시간 속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시간 자체의 변화를 가진 자들이다.

(엡1:3-6)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02. 안에서 시간 개념뿐 아니라 공간개념도 바뀌었다.

부활하신 아들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공간에 들어갔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공간은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존재공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올림 받은 상태이다. 하늘의 공간은 그리스도가 먼저 올라가서 확보하신 곳이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공간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간의 변화는 하늘에 앉아서 땅을 보는 시야가 열리게 한다. 곧 하늘에 앉아 땅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물질을 악하게 보지 않고 하늘의 관점에서 새롭게 본다. 성도가 들어간 존재적 위치는 세상 속에(in) 있지만 세상에 속한(of) 나라가 아니다.

(골3:1-4)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4/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103.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와 생사의 정의가 바뀌었다.

 목숨(푸쉬케)의 연장이 아닌 새롭게 거듭난 생명(조에이)이다. 원래 죽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창조의 정상적인 질서가 아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땅과 하늘이 통일되면서 죄로 발생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지워졌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 주장하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사의 경계가 지워질 것을 말씀하셨다.

(요11:25-26)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롬14:8)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104. **하늘의 안식이 실질상 시작된 상태를 말한다.**

하늘의 안식이 실질상 시작된 상태를 말한다. 땅에서 천국의 쉼을 기다리는 고단하기만 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서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게 하셨다. 성령은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앉혀서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 대속과 칭의만이 아니라 쉼과 자유도 함께 주셨다.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은 것의 근거와 능력은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와 함께 하늘에 앉은 안식이 땅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만드는 동력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땅의 지체를 죽이는 성화가 무겁지 않는 것은 하늘에 앉아서 자유와 안식을 얻었기 때문이다.

(골1:29)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빌2:12-14)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하라

105.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보좌우편에 앉히심이다.

성도가 땅에 속한 사람이라면 설사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최종적인 결과는 앞으로 ‘각자 하기에 달렸다’는 불안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을 안다면 불안 해 하지 않을 것이다. 겉 사람은 땅에 있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땅의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4:16-18)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 17/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106. **안식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우편에 앉으셨다. 그는 지상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우편에 앉으신 것은 안식을 뜻한다. 대제사장이 서지 않고 앉으신 것은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앉지 못하고 ‘서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유는 죄인인 자신이 먼저 속죄를 받아야했고, 직분이 영원하지 못했으며 제사도 반복되어야 했기 때문이며,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선체로 섬긴 것은 제사장과 제물과 성소가 모두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었다.

반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부활하시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수 있었다.

(히9:11-14)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으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면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우편에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107. **아담이 창조경륜을 완성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자기를 창조한 아들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선약과 언약은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과 사랑과 전부가 담긴 진심이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형상으로 창조한 자기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거역하고 실패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담을 대신하여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셨고,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언약을 성취하셨다. 둘째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었다.

(눅22:20)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세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108. **첫 창조가 새 창조로 바뀐 것이다.**

언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앉은 것은 개인적 구원을 뜻하는 것만 아니라 첫 창조가 새 창조로 바뀐 것이다. 첫 창조는 아침과 저녁이 반복하는 질서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단번에 하늘에 앉으셔서 저녁과 아침의 반복을 중단하고 ‘햇빛이 쓸 데 없는’ 새 피조물을 만드셨다.

첫 창조는 옛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안식일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반복이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첫 창조의 안식일은 영생과 영원한 안식이 있을 새 창조를 예고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은 것은 새 창조의 시작이고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이다.

(창1:5)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계22:5)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창2:2-3)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109. **첫 창조가 새 창조로 바뀐 것이다.**

언약을 체결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하였다. 그러던 중 유혹자가 나타난 하나님이 정하신대로만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는 자주자가 되라고 촉구하였다(창3:5). 하나님이 선악을 결정하셨어도 사람이 선악을 정하면 그것이 선악이 된다고 하였다.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면 하나님처럼 자주자가 된다고 압박하였다.

아담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자율적인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였다.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여 죄인이 되었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겼고 순종을 매개로 한 언약을 성취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심으로 창조경륜의 성취인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

(빌2:7-8)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110.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다.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들은 이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고, 장래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안식이 보장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성령이 부활의 보증이 되신 것이다. 현재의 영적인 부활과 장래의 몸의 부활은 성령으로 연결된 한 단위이다. 따라서 안식은 장래에만 누릴 것이 아닌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누리는 영육간의 쉼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뒤로 돌아가 에덴에 복귀할 자들이 아닌, 위로 올라가 하늘에 앉은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는 처음 창조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성도는 비록 땅에서 살지만 밤이 없는 안식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기 시작했다. 그 쉼을 통해 땅의 남은 소명을 지키거나 피곤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다.

안식은 노동의 중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에서 나온다. 노동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것으로 비롯되었다. 구약의 안식일시대에는 낮과 밤이 필요했다. 신약의 주일시대에는 낮과 밤이 필요 없는 새로운 피조물 시대이다. 첫 창조 시대에는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었지만 새 창조는 안식을 얻고 일을 한다. 곧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자는 안식이 필요치 않다.

(마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계21:3-4)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111.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노동을 행복하다.**

 명에는 쉽고 가볍다. 안식을 얻기 전과 후의 노동은 동기와 방법과 목표가 달라진다. 성령 안에서 하늘의 안식을 얻은 사람에게 땅의 노동은 어렵고 고되기만 한 일이 아니라 하늘의 짐과 멍에이기 때문에 가볍고 쉽다. 땅의 힘을 의지하면 장정이라도 피곤하여 넘어진다. 그러나 하늘의 힘을 의지하면 땅에서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

 (사40:28-31)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달음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112.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교회 가운데 도래한 종말론적 나라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종말론적 시간에 들어갔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세상 끝이 도래했다. 영생과 종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동의어이다. 신약에서 말세는 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취라는 의미도 있다.

(요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6: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113. 영생을 얻는 자가 먹는 열매였다.

에덴에 선악과와 생명과라는 특별한 두 나무를 두셨다.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열매였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죽지 않는 영생의 열매였다. 생명나무는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영생을 얻는 자가 먹는 열매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와 더불어 먹을 수 있는 열매였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에서 먹는 성만찬과 같다.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관계가 영원한 단계로 들어가야 먹는 열매다.

(계22: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 두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114. 나라는 세상으로부터 침투이다.

범죄 했어도 하나님의 언약수여로 시작된 구원사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침투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땅으로, 세상 밖에서 세상 가운데 침투한 나라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합하기 위한 침투였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에 의해 다시 열렸다. 에덴의 생명나무가 예고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였다.(요6:54) 그리스도는 영생을 위해 먹는 영원한 생명나무가 되었다. 에덴동산에서 생명나무가 가리켰던 영생이 인간의 범죄로 보류되었다가 갈보리 동산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완성되었다.

(요6:53-5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계22:1-2)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 두가지 실과를 맺히되 날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우편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현재 속으로 들어온 종말론적 미래의 시간 속에 살고 있고, 시간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으며,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을 통합하시고 만유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 우편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을 행사하고 있다.

(벧전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거룩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16. 소유가 아닌 관계이다.

소유가 아닌 관계이다. 곧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언약적 연합이다. 부활하신 아들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고, 아들과 함께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었다. 영생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죽음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영생이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만난 곳이 이미 천국의 시작이다.

(요1서5: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17. **구원사적 종말의 사건으로 이해해야 한다.**

교리는 개인 구원론으로만 해석하면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도리어 이신칭의는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성취된 구원이 성령에 의해 개인에게 적용된 것이다. 칭의는 종말론적 사건으로써 마지막 심판을 현재로 앞당긴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가 전개한 새로운 시대에 속한 종말론적 공동체이다.

(롬8: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18. **대속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목적이다.**

범죄이전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한 상태로 올라가는 완성이다. 구원은 죄와 심판을 벗어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대속을 넘어서 연합이 구원의 진정한 목적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종말론적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인의 구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사적 종말의 도입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정의한다.

(엡2:14-18)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19. 목표는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영원 전에 누렸던 언약적 사랑과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다.

사랑과 거룩함은 죄보다 앞선다. 구원이 단순히 심판을 면하는 것이라면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구원의 목표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에 참여함이기에 그것은 위로 일으킴을 받은 부활로만 가능하다.

구원은 죄인이 십자가를 통해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는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한 진정한 목적은 삼위가 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 영원 전에 누렸던 언약적 사랑과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함이다. 이에 바울은 구원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합하여 세례 받는 것으로 정의했다.

(골2:12)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롬6: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20.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주님께 참여함이다.

꼭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밖에 계시고, 아직도 우리와 분리된 상태라면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가 받은 고난과 성취한 모든 것은 아무 사용 가치가 없는 채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구원의 본질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와 부활과 보좌우편에 좌정하신 그리스도에게 부활하신 아들의 영이신 성령으로 연합하여 동참함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므로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원에 동참한다.

(롬6:10-13)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찌어다...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21.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아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며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들이다.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아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며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들이다. 곧 죄만 용서받은 상태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생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하신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롬6: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22. **하나님의 자기 객관화이다.**

일반학문과 달리 이성으로 알 수 없다.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서 신지식을 얻는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시의존사색’을 통해 만유의 가치와 의미를 해석한다. 참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에서만 온다.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실 때 자기의 로고스이신 아들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주신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자기 객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만 자신을 계시하신다.

(요1: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 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23. **구원론과 인간론의 기초이다.**

인성은 죄인을 위한 대속과 죄인과의 연합을 모두 위한 것이었다. 연합을 통해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동시에 거룩하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의를 전가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다. 그리스도의 신인양성에 기초한 기독교론은 성경적인 구원론과 인간론의 기초가 된다. 구원의 목적은 대속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간성의 완성이다.

(갈4:19)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가 성취한 사역에도 동참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도 동참한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도 연합하여 세례를 받게 된다.

(롬6: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빌3:7-9)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8/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125. 구원의 서정은 없다.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서정은 없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아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히심은 단 회적 사건이다. 구원은 여러 조각을 순서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단번에 받고 그 형상을 덧입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함과 동시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성화가 시작되었다.

(롬6:3-5)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5/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126. 성령의 주된 사역이다.

누구나 가질 수 있으나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께서는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신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령에 의한 믿음을 통한 연합이다.

(마16:17)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27.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언약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롭게 되는 방식이다.(롬1:13)

 둘째, 율법을 흠 없이 지킨 사람의 의를 믿음으로 전가 받는 방식이다(롬3:28).

 전자는 에덴에서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만 가능한 방식이었다. 아담의 범죄로 죄를 전가 받은 인류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후자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은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 받는 것이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롬3:28)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128. 서정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얻은 구원의 논리적 배열이다.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위로 올라가는 사건이다. 믿음과 회개로 나타나는 개인적인 회심은 그에 따른 열매이다. 믿음과 회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신을 의식하고 반응하는 행위이다. 구원의 서정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얻은 구원의 논리적 배열이다.

(엡2:4-7)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129. 가까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청의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들은 죄인의 상태에서 의롭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의가 덧 입혀져 하나님의 큰 기쁨의 대상이 된다.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목표는 단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청의이다. 청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인 근거이다.

(엡1:4-5)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30. **신학에서는 인간의 죽음은 정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신학은 기독교의 근본진리를 자연주의화 하여 더 이상 교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도록 만든다. 즉 자연인은 본래대로 좋은 상태에 있고 정당한 상태라고 주장한다. 사람은 본래 죽도록 만들어 졌으며 따라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 사람이 죽은 것은 죄 때문이 아니고 본래 죽도록 만들어 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죽음 후에 심판이라든지 영원한 형벌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가르침은 구원주와 구원에 대한 신앙이 필요 없게 만들어 교회의 필요성을 없앤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계명으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인간을 영생하도록 창조하셨다. 인간의 죽음과 사망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십자가로 해결하셨다.

(창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31. **성화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한 것에서 출발한다.**

성화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와 ‘아직’의 형태로 땅에 임한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하늘의 시공간 속에 올라간 사실과 아직 땅의 시간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명령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위로 올림 받았으니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하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골3:10)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132. **부활은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나라의 복음이다.**

오신 것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기 위함이다. 십자가와 부활은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바울사도는 십자가를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이 못 박힌 것으로 이해했다. 피조물의 회복과 구원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사건이다.

(갈6:15) **할레나 무 할레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133. 담대함은 성령을 받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
문이다.

 아들의 영인 성령의 강림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
을 보였다. 공회와 관원들을 두려워했던 자들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
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

 그들 자신이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사
실을 확신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바 된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엡2:4-7)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허물
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이는 그리스도 예
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땅에 속한 사람에게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하지 않았다. 땅에 속한 사람에게 죄에 대하여 죽으라고 했다면 각자 능력껏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성화다 그러나 이것은 무거운 굴레를 덮어씌우는 것이 아니겠는가?

도리어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하늘에서 자유와 안식을 얻은 사람에게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했다. ‘지금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부활하신 아들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이미 ‘오는 세대’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롬12:1)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부활과 승천으로 공간 이동이 이뤄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앉아서 땅의 삶을 사는 자들이다. 성화는 하나님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그 나라에 상응하는 생활을 당연하게 요청되어 지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들어가신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지성소가 그것을 요청한다.

(히9:24)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공간 개념은 대단히 중요하다. 성경은 언약을 공간적인 모형을 빌려 설명한다. 아담은 범죄하고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에서 쫓겨났다. 노아의 가족들은 홍수를 피해 방주로 들어갔다. 아브라함은 본토친척 아버지를 떠났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 가나안에 입성했다. 언약을 어긴 그들은 약속의 땅을 떠났지만 다시 회복되었다.

이처럼 언약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로 인한 공간적인 이동이 있었다. 이는 그리스도가 고난 받고 들어가실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리스도가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서 하늘로 이동하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의 완전한 공간이동을 이루어졌다.

(히11:16)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137. **최후 목적지는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존재가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가 그곳에 서지 않고 앉았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앉은 것이다. 지성소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마지막 장소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지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반복된 이동이 완성되었다.

땅의 모든 공간적 이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 위한 모형이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보다 영원한 목적지는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는 마지막 이동이다. 언약의 최후 목적지는 삼위 하나님이다. 연합을 위해 기도하신 그리스도의 뜻이 성취되었다.

(요17:26)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138. **아들의 영이신 성령은 성도의 부활생명 그 자체이다.**

부활하신 아들의 영을 부어주신 성령강림은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올리우신 주께서 아버지께 받아 부어주신 구원사적 사건이며,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나라가 세상에 침투한 사건이다.

성령으로 거듭남이 단지 부활을 준비하는 단계가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부활생명 자체이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어떤 추상적인 원리나 능력이 아닌 삼위 하나님의 셋째 위격이시다.

(행2:33)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139. **충만은 현재만이 아닌 미래에 속한 상태를 말한다.**

성도의 말세의 부활까지 언약한 육신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임시적인 중재자가 아니라, 성도 안에 거듭남을 주시는 부활생명 그 자체이다. 성령을 부활의 보증이라 한 것은 구원이 종말과 통합된 것을 말해준다. 성령 충만은 본질상 현재만이 아닌 미래에도 속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남은 현재의 구원만이 아닌 미래의 부활을 미리 경험하는 미래적 생명이다.

‘성령의 교통’은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만 아니라, 성령 자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부활하신 아들의 영인 성령의 내주는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여 교통하는 언약의 성취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신비한 은사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수단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고후13: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140. **아들의 영을 받은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있다.**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셔서 부활하신 자신의 영을 보내주셨고, 교회는 부활하신 아들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

(벧전5:10)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수건은 쓴 사건은 두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에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 수건을 쓰고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묻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건을 모세가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수건을 쓰고 나아갔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그것은 죽음을 뜻한다.(출33:20) 모세와 달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수건을 쓰실 필요가 없으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쏟으시고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셨고 이로써 교회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였다. 이것의 영광스러움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은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시대가 왔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죽지 않는다.

(고후3:7-18)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11/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 13/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14/..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6/...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17/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18/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42. 부활하신 아들의 영인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
에 앉게 되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담의 범죄를 원점으로 돌리고(창조의 회복), 부
활과 승천으로 하늘에 올라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보내시므로, 부활하신 아들의
영을 받은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
다.(창조의 완성) 성령을 받아 거듭난 것은 단지 땅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들림 받아 그리스도가 승천하여 계신 곳에 함께 앉은 공간적 이동이다.

(롬8: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
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43. 주는 최고의 명예는 하나님의 양자됨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는 ‘양자의 영’이다.(롬8:15) 신약에서 성령에 대한 묘사 중에 아마도 가장 풍성한 이름은 ‘양자의 영’이다. 맏아들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구원이 주는 최고의 명예는 하나님의 양자됨이다. 그와 함께 후사된 자녀들은 하늘의 영광과 땅의 고난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하늘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땅의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롬8:37)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 그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았기 때문이다.

(롬8:15) 너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44. **부활이 단 회적이고 영원한 것처럼 성령의 내주도 단 회적이고 영원하다.**

사건으로써 오순절의 성령강림은 그리스도의 승천의 결과로 이뤄진 단 회적 사건이다. 오순절의 특수한 성령강림은 오늘날 교회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은 성령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원한 것처럼 성령의 내주도 영원하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장래 성도의 부활이 되도록 성령이 친히 보증하신다.

바울은 첫 열매와 추수는 유기적인 일체라고 설명한다. 부활의 첫 열매가 없으면 추수도 없고 부활의 추수가 없다면 첫 열매도 없는 것이 분명하다.

(롬6: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45. 지을 수 있는 시작단계와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성단계가 하나님의 창조경
륜이다.

창조부터 완성까지 인간의 자유의지가 네 단계를 통과하면서 완성된다
고 하였다.

첫째, 에덴에서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다.

둘째, 세상에서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였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였다.

넷째, 하나님나라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부활은 네 번째 단계에 이르게 한다. 첫 단계와 마지막 단
계는 창조의 시작과 완성을 보여준다.

(고전15:49) 우리가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자의 형
상을 입으리라

성령을 개인 구원과 은사를 위한 방편으로 축소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성령강림을 먼저 구원사와 하나님나라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그 후 구원의 서정 안에 있는 성령의 사역을 정립해야 한다.

오순절의 성령강림은 철저히 기독교론적 사건으로 해석해야 한다. 오순절의 성령강림은 하나님나라가 땅에 임하는 새로운 시간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가 성령의 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다. 주관적인 성령의 중생케 하심과 열매 맺게 하심과 은사들은 그리스도가 승천하여 하늘에 앉으심으로 이뤄진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전에 선택받은 각 사람에게 인치시는 작업이다.

(요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는 것보다 고상한 지식은 없다.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의 수단이 아닌 그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하늘에 앉아서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이 성화이다.

성령의 세례는 생명이 태어나서 하늘에 올림 받는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정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땅의 지체를 죽여서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

(갈5: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빠진 성령론은 성령을 개인적인 체험과 영성의 수단으로 여긴다. 성령의 충만을 양적인 개념으로도 이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성경을 영성과 경건과 은사의 도구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성령은 소유하는 대상도 아니고 영적인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도 아니다.

성령은 삼위하나님의 셋째 위격이시다. 그 분의 주된 사역은 그리스도가 성취한 새로운 피조물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일이며 그 분의 인침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는 종말론적 사건이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간 하늘의 성소와 하나님나라의 보편성이 개인적 구원과 은사의 특수성을 받쳐준다. 하나님나라의 새 창조는 개인구원과 경건의 바탕이며 원천이다.

(요14:17)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49.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나라의 열매들이다.**

세례, 열매, 은사는 하나님나라의 열매이다. 성령의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나라의 전초기지가 되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그의 세례와 은사와 열매를 통해 하나님나라를 세상에서 세워가는 역할을 하신다.

(엡4: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0. **강림은 하나님의 창조경륜의 성취이다.**

빠진 개인의 구원과 체험은 성령의 사역을 하나님나라에서 분리시킴으로 주관적으로 치우치게 한다. 성령의 사역은 아들이 이루신 하나님의 일에 근거해야 한다. 구원사의 종말에 오신 성령은 반복하여 강림하실 필요가 없다.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창조경륜의 성취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종말론적 교회 안에 성령은 영원히 내주하신다. 그리스도가 단번에 하늘성소에 들어가신 것처럼 성령도 단번에 강림하신 것이다.

(요16:7)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151. 성령의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나라의 열매들이다.

없는 집은 무너지고 뿌리 없는 가지는 말라버리는 것처럼 교회도 그러하다. 교회의 기초는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하나님나라와 새로운 창조에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은사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때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술 취하는 것은 땅의 것에 취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은 하늘의 것에 취하는 것이다.

(엡5: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52. **구원의 메뉴얼이 아닌 구원의 역사이다.**

개인 구원의 메뉴얼이 아니라 창조경륜에 근거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다. 그리스도가 세상 끝에 오셨고, 성령이 종말에 임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조물의 구원과 완성을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와 성령의 전이 되었다. 이로써 성령 안에서 땅과 하늘이 통합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히10:19-20)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153. **창조경륜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였다.**

구원사는 인류를 두 아담 사이에서 해석한다. 곧 ‘흠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구속사의 골자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입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의 처소이며, 하나님나라 그 자체이다. 교회는 하늘에 앉은 자들이 그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서 드러내는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창조경륜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였다.

(고전15:48) 무릇 흠에 속한 자들은 저 흠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154.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이다.

교회는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시는 언약관계이신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한 몸 공동체의 모델이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창세전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상호 나누었던 영광과 사랑을 언약관계의 모델로 보여준다.

하나님께서서는 교회로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연합과 교제를 닮도록 계획하셨다.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누었던 사랑을 교회가 알고 동참하기를 원하셨다.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는 교회가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상호 사랑 안에 영원히 참여하는 것이다.

교회로 인하여 삼위 하나님의 존재구조에 변화가 발생했다. 그 변화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구조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리고 아들 안에 교회’라는 변화이다. 교회는 ‘말아들’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인 성자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상전과 종, 종족과 성별과 신분의 차별이 사라졌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된 것이다.

(요17:24) 아버지여 내게 주신 바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155. **존재방식의 모델은 삼위의 가족적 관계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곧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시는 한 몸 공동체인 하나님의 가족적 모델을 채택하도록 계획되었다. 교회의 존재방식의 모델은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한 몸 공동체로써 가족관계이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기위해 죽으셨다.(롬8:29) 곧 성자께서 인간이 되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고, 교회는 부활하신 아들의 영인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족과 권속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개인보다 가족이 먼저다. 가족과 개인은 상호적이지만 가족이 있어야 개인이 있다.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 있고 성도가 있는 것이다. 생명은 공동체에서 개인에게 흘러나간다.

(롬8:17)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56.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창조된 ‘한 새사람’이다.

의미에서 교회는 마지막 아담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창조된 ‘한 새사람’이다. 곧 그리스도가 머리되시고 성도들이 몸이 되는 ‘한 새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지체들의 연합과 역할이라는 기능적인 관점에서만 볼 수 없다. 교회는 본질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머리와 몸을 합치면 ‘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몸 된 교회를 보신다. 여러 사람을 통해 교회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한 사람’으로 보신다.

(엡2:15)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57. **모든 신학의 총괄이다.**

무엇인가를 묻는 교회론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묻는 기독교론, 인간이 누구인가를 묻는 인간론, 구원이 무엇인가를 묻는 구원론,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를 묻는 성령론을 종합하는 결론이다.

(딤후2:15-16)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16/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 지셨느니라.

158. 새 아담이 있고 그에 연합한 새 사람이 있다.

개인 구원을 위한 매뉴얼로 정의하면, 교회는 개인들을 모아놓은 집단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공동체, 때로는 예배, 친교, 교육, 전도, 선교의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자의적인 집단이 되고 만다. 인간들의 자율적인 의지로 교회를 만들었다면 복음은 나를 위한 복음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구원사적 관점에서 구원이란 그리스도가 지은 새 아담과 새로운 피조물을 성령이 개인에게 인친 것이다. 먼저 새 아담이 있고 그에 연합한 새 사람이 있다. 개인이 모여서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가족이 개인을 세상에 나오게 한다.

하나인 동시에 삼위인 하나님의 관계가 교회의 모델이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삼위의 상호적 사랑과 피차 복종의 언약적 관계를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삼위 하나님의 언약과 교제를 보여주는 공동체이다.

(고전12:12)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59. 언약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내세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교회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나라의 능력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합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였다. 언약공동체인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매 주일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아 아버지와 교제한다.

안식일이 첫날로 바뀐 것은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아버지와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기 위함이다.

(히8:4-5)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5/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160. 예배와 모임은 하늘의 모형에서 하늘의 본체로 완성되었다.

속죄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경륜의 완성과 새 피조물의 완성에 대한 감사가 기본이다. 구약에는 손으로 지은 성소 곧 하늘의 모형을 중심으로 모였으나, 이제는 직접 하늘에서 모인다. 교회는 하늘의 성소에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간 언약백성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예배와 모임의 수준이 하늘의 모형에서 하늘의 본체로 완성되었다. 땅의 성소를 중시했다면 하늘의 성소는 더 중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기를 폐하는 것이 아닌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히10:24-25)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12:22-24)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4/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161.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구원은 단지 그가 성취한 사역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합하고 형상을 닮은 것의 결과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며 모든 언약의 영원한 성취이다.

제자는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사역보다 우선이다.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는 존재적 변화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하늘의 공간에 들어가야만 시작되는 삶이다.

(엡2:14-18)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2. **속한 사람만이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다.**

속한 사람만이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없다. 땅이 전부라면 그것을 버리기 어렵지만 하나님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아를 근거로 땅에 속한 자신을 부인할 수 있다.

하늘은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땅의 것에 여전히 얽매어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것들을 삶의 전부에 적용하는 사람이 하나님나라의 제자이다.

제자 도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땅에 속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순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된다. 하늘에 앉은 것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이제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닌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산다. 십자가는 부활로 나아가는 관문이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는 감추인 복이다. 십자가는 하나님나라의 통로이다. 영문 밖에서 고난 받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현실을 떠나는 것이 아닌 더 궁극적이고 영원한 현실로 나아가는 것이다.

(골3:1-4)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4/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163. **나라는 세상에 침투한 것이다.**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침투’(intrusion)한 것이다. 세상나라에 속한 것이 아닌 세상으로 침투한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시작되어 재림에 완성된다. 세상으로 침투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퍼져나간다.

(마13:31-33)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2/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33/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164. 떠나지 않으시는 것은 성도의 생명이 영원에 속했다는 증거이다.

창조 이래 경험할 수 없었던 말세에 부어주신 영이다(행1:17). 성령은 성도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킨 부활의 보증으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성령이 떠나지 않으시는 것은 지상에서 성도의 생명이 이미 영원에 속한 것을 의미한다.

(요1서4:13-17)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노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165. **속한 사람만이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다.**

종말론에서 지금세대와 오는 세대가 상하로 겹치고 위가 아래를 다스리는 ‘아직, 그러나 이미’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강림으로 생겨난 시공간이 새로운 구조다. 십자가와 부활은 종말론적인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지극히 실용적인’ 능력을 땅의 삶에 공급해 준다.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을 하나님 우편에 앉혀서 위가 아래를 다스리는 급진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만들어 낸다. 하늘의 속사람은 땅의 겉 사람에게 하늘에 부합하는 자아의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고후4: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종말론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신약전체를 종말론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최근의 발전이다. 신약에서 종말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미’와 ‘아직’의 종말론은 결국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신학의 끝이 아니라 시작과 중심에 놓여있다. 구원사에서 종말은 하나님의 창조경륜이 성취될 때를 가리킨다. 그때가 종말이며 이 종말은 시간의 끝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둔다.

(히1:1-3) 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67.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나라의 완성이다.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사적 성취는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나라 뿐만 아니라 재림의 시기와 방식, 그리고 천년왕국의 성격을 규정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말세에 일어날 사건들과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본질상 같은 사건이며 그 원인이다. 그렇지 않으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은 현재와 무관하고 무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교회가 재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나라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와 부활로 도래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재림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강화시킨다.

현재적 종말론은 미래적 종말을 더 갈망하게 만든다. 재림이 단지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의 끝이라는 생각들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하나님나라의 ‘이미’와 ‘아직’은 서로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킨다.

(요일3:1-3)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2/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셨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168. **의한 구원론은 언어표현의 문제가 아닌 실제적 현실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는 그들이 기대하는 충만한 미래의 완성에서 거꾸로 부분적인 현재의 경험으로 움직였고, 전자에 의해서 후자를 해석했다. 그들은 생각과 마음은 현재에서 미래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로 움직였다. 십자가와 부활안에 종말론과 구원론의 통합이 담겨있다. 종말론과 구원론의 분리는 ‘이미’와 ‘아직’의 분리를 의미한다. 둘의 분리는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미래로 보류하는 결과를 낳는다. 종말론에 의한 구원론을 형성하는 것은 언어표현의 문제가 아닌 실제적 현실에서 나온 것이며 언어는 그것에 맞춘 것이다.

(4:13-16)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함이라 15/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두 번 오시는 구원사적 구조에 의한 종말의 시간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은 새로운 시간을 말한다. 부활의 보증으로 오셔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미래의 나라가 아닌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전한다.

(엡1:3-6)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70. ‘이미’와 ‘아직’의 중간시대에 나타날 하나님의 강력한 왕권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다.

‘ ’에 대한 해석은 십자가와 부활의 해석에 달려있다.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승천, 성령에 의해 미래에서 현재로 진입한 하나님나라의 종말론적 구조에서 해석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두 단계로 온다. 그것은 하늘과 땅이 통합되고 상하로 겹쳐진 하나님의 나라이다. ‘천년왕국’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말세에 부어주신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하나님나라의 강력한 심볼리즘이다.

요한계시록의 ‘천 년’은 문자적 의미가 아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중간에 하나님나라의 강력한 상징이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땅과 하늘이 통합된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에 다시 지상의 왕국으로 반복할 필요가 없다.

미래에 지상에서 펼쳐질 천년왕국에 대한 기대는 초림과 재림의 중간시대를 하나님나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이며,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사적 종말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20: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71. **아직의 구조로 이루어진 하나님나라를 수용하지 않은 천년왕국의 견해는 오류이다.**

 재림, 이미와 아직의 구조로 이루어진 하나님나라를 수용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그릇된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이 나타난다.

 첫째, 초림과 재림의 중간기가 하나님나라와 무관하다. 하나님나라는 아직 오직 않았고 교회는 지상에서 미래의 하나님나라를 기다리는 대기상태이다.

 둘째, 하나님나라는 두 단계가 아닌 세 단계 혹은 여러 단계로 임한다. 먼저 교회를 통해 하나님나라가 임하고, 장래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천년왕국이 땅에 세워지고 끝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다 단계 구조이다.

 첫 번째 견해는 하나님나라에 대한 신약적 증언에 부합하지 않고, 두 번째 견해는 지나치게 복잡하여 신약적 하나님나라에 대한 증언에 부합하지 않다.

 (눅11:20)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172.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기에 천국열쇠를 가진 것이다.

아들의 영을 받은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여 하늘에 앉힘을 받았다.(골3:1-4) 육신은 땅에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졌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의 왕권과 하나님나라의 권세를 함께 누린다.(마28:18,벧전2:9)

이같은 사실 때문에 교회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열쇠를 받았다. 이 권세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와 같은 열쇠다(계1:18).

(골3:1-4) 그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4/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173.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라는 뜻이다.**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벌써 들어간 자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서 현존하는 실체가 되었음을 말해준다.

베드로가 말한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은 요한계시록의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는 내용과 일치한다(계20:6).

(계20: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74. **부활에 참여한자들은 둘째 사망과 심판이 주관하지 못한다.**

“ ”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에 동참하여 하늘에 앉히심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기에 둘째 사망과 심판이 주관하지 못한다(계20:14). 첫째부활에 참여한 것과 생명책에 기록한 것은 같은 사건이다(계20:12).

(계20: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크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75.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기에 천국열쇠를 가진 것이다.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힘을 받은 영적인 부활은 곧 ‘천년왕국’의 시작인 첫째 부활이다. 요한계시록에 천년왕국은 복음서와 바울서신에 나타난 하나님나라와 일치한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천에 성령으로 동참하여 일으킴을 받는 부활과 일치한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하나님나라의 시작으로 보는 신약전체와 부합한다.

전 천년설과 후 천년설은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지지하지만 무 천년설은 천년왕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임한 하나님나라를 ‘천 년’으로 해석한다.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사적 성취가 ‘천년 왕국’인 하나님나라의 시작이다.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천년왕국에서는 상징적인 천년왕국을 지지한다.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물을 통합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나라와 천년왕국은 본질상, 시간상 같은 나라이다.

(16:17-19)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176. ‘ 천 년’은 숫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의 신분이다.

‘천 년’은 숫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의 신분이다. 교회의 시대를 하나님나라의 시대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천 년’의 상태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교회와 내용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것이 구약의 완성으로 묘사되는 언약신학의 해석학적 방법론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하늘에 앉은 교회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나라의 성취이며 완성될 미래의 하나님나라와 본질상 일치한다.

(2:10-11)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77.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기에 천국열쇠를 가진 것이다.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인데 둘에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구원과 종말론이 합쳐졌다. 그리스도의 즉각적인 부활은 종말론 안에 개인적 구원론을 포함시킨 중대한 사건이다. 부활로 인해 교회도 즉각적으로 일으킴을 받아 하나님의 우편에서 미래의 칭의를 현재에 받은 것이다.

종말론과 구원론이 분리된 신앙은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 부활은 단지 미래의 사건으로 보류되는 것이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유에 대하여 비관적이다. 세상을 비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근본주의적’ 신앙은 창조와 타락을 거의 구별하지 않는다. 이는 뼈아픈 교회의 실책이다. 십자가와 부활중심의 구원사적 해석은 창조와 물질세계에 대한 소극적인 관점을 적극적으로 바꿔준다 종말론은 심판만이 아니라 회복과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골2:12)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78. **아담의 몸은 완성될 하늘의 형체를 예고한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의 창조경륜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성경전체의 중심이며 구원사의 결론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눅24:44)라고 하신 말씀이 그 근거이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고난은 아담의 불순종 대신 하나님께 드린 완전한 순종이었고, 부활은 아담이 얻지 못한 영생과 하나님나라를 얻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것은 구원사의 마지막 단계를 말한다(고전15:45).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로 인해 죽을 몸과 비교된 것만 아니라, 죄가 없었던 아담의 몸과 비교되었다. 타락이전 아담의 몸은 완성될 하늘의 형체를 예고한 몸이었다.

(고전15:38-49)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39/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40/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5/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께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7/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자와 같으니 49/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179.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사의 클라이맥스적인 사건이다.**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사의 클라이맥스적인 사건이다. 바울의 종말론은 그리스도의 부활 = 종말이라는 등식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성령강림을 통해 ‘한 새사람’인 교회를 지으셨다(엡2:15-16). 그리스도는 그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

(엡2:15-16)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소멸하시고

180. ‘흠에 속한 형상’을 ‘하늘에 속한 형상’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창조경륜은 ‘흠에 속한 형상’이 ‘하늘에 속한 형상’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이 창조언약을 파기함으로 영생과 안식은 새 창조 시까지 보류되었고, 하늘에 속한 형상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급진적인 방식을 통해서만 완성되게 되었다(고전15:47-49). 창조는 이제 심판을 통해서만 회복과 완성이 가능해졌다.

(고전15:47-49)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흠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무릇 흠에 속한 자들은 저 흠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우리가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물질의 썩음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범죄의 결과였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자 성령도 함께 떠나셨기 때문에 피조물은 썩기 시작하고 인간은 유전적인 죄성을 물려받아 육신을 쫓는 자가 되었다.

아담이 잃은 것은 장소적인 에덴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는 하나님의 나라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은 것은 영생을 잃은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다(요3:5).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하나님나라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보류되었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그와 연합한 자들에게 주셨다(골1:13-4).

(골1:13-14)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182. 옷장과 창고와 교회에 갇힌 종교를 기피했다.

‘ 옷장과 창고와 교회에 갇힌 종교를 기피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위로 올라간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성과 속을 할 수 없이 아래에서 나누게 된다. 구원은 땅에서 하늘을 기다리는 상태가 아니다.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면 교회의 안과 밖을 성과 속으로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

세상을 종교적 영역과 비종교적 영역으로 나누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위에서” 봐야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곳에서 세상을 본다. 하늘에서 세계관의 관점과 기준을 새롭게 바르게 정한다. 종교적 영역과 비종교적 영역을 포함한 땅의 모든 생활은 하늘에 앉은 관점에서 거룩한 것이며 그래야만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엡2:22-23) 만물을 그의 발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이니라

183. ‘ ’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본받지 말라고 한 ‘이 세대’(롬12:2)는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세상이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육신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다면 좌절하게 만들뿐이다(롬8:7).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실천가능하다. 능력과 자원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앓은 하늘에서 공급되기 때문이다.

(롬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8: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184.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5:20) 하셨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기준에서 지극히 ‘거룩한 사람들’이었다. 그들보다 더 종교적인 사람들은 없었다.

제자들은 ‘세속적인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제자들이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는 방법은 한 가지 길밖에 없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가 살고 자기는 죽는 것이다(갈2:20). 주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에 앉을 수만 있다면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은 기쁘고 가능한 일이다.

(갈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185. 의해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신앙과 지성이 통합된다.

지성의 관계는 지성주의, 반지성주의, 기독교적 지성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지성주의는 믿기 위하여 알아야 한다’라 한다. ‘반 지성주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라 한다. ‘기독교적지성은 알기 위해서 믿는다’고 한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고 기독교 세계관이 옳다면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지식의 과정, 진리와 증거의 기준, 궁극적인 권위, 인식론의 중대한 요소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좌우한다.

성도가 거듭난 순간 육신의 보이는 것만이 아닌 믿음으로 행한다(고후5:7). 신앙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만 지성이 가능하게 된다. 사고와 인식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신앙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신앙에서 사고가 출발하는 인식론의 변혁이 일어난다. 성령에 의해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신앙과 지성이 통합된다. 땅에 속한 사람은 신앙과 지성의 이분법에 빠지게 된다.

(고후5:7)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으로라

186. **본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그에게 연합되므로 세워졌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교회의 설교와 성례는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화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다. 즉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교회에 와 있다.

(엡3:17-19)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4:13-16)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함이라 15/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87. 부활은 새로운 피조물의 시간과 공간을 창조했다. 새로운 세계관의 근거이다.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늘과 땅의 통합되는 세계관이 시작된다. 바울의 세계관은 십자가에서 자신과 세상이 못 박힌 새 창조에서 시작한다.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시간과 공간을 창조했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의 역사와 사물에 대한 해석만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된 땅과 하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도록 한다.

(골1:13-20)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15/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16/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그는 몸인 교회의 머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9/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188. **세계관은 구원사적 관점에서 비롯된다.**

“시간 사이”에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현재”에서 사는 것이다. 성도가 땅에서 천국을 기다리기만 한다면 통합적인 세계관은 가능하지 않다. 구원은 땅에서 천국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힘 받은 현재완료형이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기독교세계관의 기초이며 골자이다(골3:2) 땅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은 하늘위에서만 가능하다. ‘처음과 마지막’ ‘영원에서 영원까지’ ‘땅과 하늘’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현실이다. 기독교세계관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온다. ‘성과 속’ ‘지성과 신앙’ ‘직업과 소명’ ‘복음과 문화’ ‘교회와 세상’을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사적 성취에서 본다.

(골3:1-4)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4/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189. **부활의 구원사적 성취가 복음과 문화를 하나 되게 한다.**

‘복음은 죄로 인해 망가진 문화의 원래의 목적대로 방향을 전화시키는 것’ ‘그리스도는 문화의 전환 자’라고 했다.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창조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창조와 타락을 혼동하거나 창조를 단지 구원을 위한 배경으로 삼아도 안 된다. 인간론과 죄론 때문에 창조론을 등한시한 전통적 견해는 복음과 문화를 물과 기름처럼 이원론에 빠지게 하였다.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사적 성취로 복음과 문화가 하나 된다.

(골2:12)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90.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중에 하나이다.**

복음 안에서 에덴의 문화명령을 지속하게 하시고 유지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적인 소명과 사회적인 소명을 동시에 갖는다. 문화도 하나님나라 요소로 존재하며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

첫 창조와 두 번째 창조는 불연속성이 아니라 연속성이다.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에 본질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구원사적 문화관은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사회복음과 같은 것은 결코 아니다. 만유가 하나님에게서 나와 하나님에게로 귀속된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

(롬11: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191.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쪼개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
셨다.

(covenant)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베리트’이다. 언약을 ‘세운다’는 ‘카
랏트’를 직역하면 ‘쪼갠다’는 뜻이다(창15:17).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세우셨기 때
문에 자신을 쪼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쪼갠 사이 고기 사이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햇불이 지나가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므로
피로 맺은 자신의 언약을 확인하셨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쪼개서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셨다.

(창15:17) 해가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92. **중보자가 자기의 창조를 회복하고 완성하기 위하여 구원의 중보자가 되
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를 삼위 하나님의 ‘구원협약’이라고 한다.**

반역한 인류를 구원하시어서 다시 자기백성과 자녀로 삼기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과 그의 속죄제사의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작정이 ‘구원협약’이다. 삼위께서 아들을 구원의 중보자로 합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창조의 중보자요 직접적인 인류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이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성자께서 자신이 창조한 인류가 범죄하여 멸망하게 되었으므로
구원중보자가 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합의하셨습니다. 이 합의를 ‘구원협약’이라고 한다.
창조의 중보자가 자기의 창조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기로 작정
하셨습니다.

(롬3: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
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
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193. 타락한 인류 중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이 일부는 인류자체이다.

선택은 아들의 구속을 통해서 타락한 인류 중 일부를 구원해 내기로 하심이다. 일부는 전체가 아니라는 의미이지만 소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일부는 인류자체이다. 첫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구원에 이르므로 인류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카위퍼는 이를 나무의 비유로 설명한다. 큰 나무에 마른가지가 있는데 그 마른가지를 제거하면 나무자체가 남는다. 마찬가지로 인류 중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마른가지이므로 그들을 제거하고 나머지 인류자체는 구원에 이른다.

(딤후2: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의 법적제약을 자신에게도 지우셨다. 언약 당사자인 아담이 언약을 파기해도 하나님은 기꺼이 언약을 성취하여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리에 오셔서 언약을 파기한 죄를 무효화하여 언약을 회복하기로 하셨다. 곧 언약의 계명을 범한 죄과대로 죽음을 감당하여 죄값을 지불하시므로 아담의 죄과를 무효화하셨다.

(창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95. 죄과가 범해진 그 본성에서 죄가 속량되게 하신다. 이것이 원상회복의 법이다.

죄과가 범해진 그 본성에서 죄가 속량되게 하셨다. 곧 죄과가 범해진 본성이 짓값을 지불하므로 죄에서 구속하기로 하셨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죄과를 속량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본성을 입으시고 인간이 범한 죄과 때문에 받을 형벌인 죽음을 대신 감당하시므로 짓값을 갚아 하나님의 법, 곧 의를 세우기로 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원상회복의 법을 가르치셨다(출21:23-27). 하나님이 가르치신 이 법은 복수의 법이 아닌 원상회복의 법이다. 사람이 범한 죄과를 인간의 본성으로 성육신 하신 이가 자신이 가진 인간의 본성으로 짓값을 지불하심으로 인간의 구원이 이뤄지게 하셨다.

(출21:23-25)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텐 것은 텐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196. 새 인류의 조상이신 그리스도를 하늘의 인격으로 출생케 하셔서 그
에게 속한 자들을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다.

영적 새 인류를 만드시기 위하여 새 인류의 조상을 영의 사람으로
조성하셨다. 곧 성령으로 수태되고 형성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수태되고
형성되었으므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전15:45).

새 인류를 조성하기 위해서 새 조상이 필요하였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만들어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부터 난 자이신 그리스도를 새 인류의 조상으로 삼으셨
다. 이 일을 위해서 성육신이 필수적이다. 인격은 자기의식과 자기결정의 주체이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출생하므로 하늘의 인격으로 출생하였다고 표현하였다
(고전15:47-48).

(사8:18)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
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히2:13-16)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불지어다 나와 및 하나
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14/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16/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
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197. 수여자가 율법성취의 요구를 성취하므로 의를 획득하셨고, 생존권을 확보하셨다.

의는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킴으로 받는다. 의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생존권을 말한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의가 세워진다(롬2:13)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존이 허락된다. 법을 어기면 죽음뿐이다(창2:17). 첫 인류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므로 죄인이 되어 생존권을 박탈당하여 죽게 되었다(창2:17).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완전히 지킴을 요구한다. 그러나 범죄한 인류는 아무도 그 율법을 그 요구대로 지킬 수 없다. 그러므로 율법의 수여자께서 율법성취의 요구 곧 짓값을 갚으라는 요구를 성취하므로 율법을 다 이루셨다. 그리하여 새 인류의 대표로써 율법준수의 의무에서 사람들을 해방하셨다.

(롬2:13)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98. **성령으로 수태되고 형성되었으므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성령으로 수태되고 형성되었으므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전15:45).
새 인류를 조성하기 위해서 새 조상이 필요하였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만들어 내
시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부터 난 자이신 그리스도를 새 인류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이 일을 위해서 성육신이 필수적이다.

인격은 자기의식과 자기결정의 주체이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출생하므
로 하늘의 인격으로 출생하였다고 표현하였다(고전15:47-48).

(고전15:45)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
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전15:47-49)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
늘에서 나셨느니라 48/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8/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199. **성육신은 영이 아닌 인격으로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류와 함께 하심이다. 영으로 인류와 함께 하심이 아니라 그의 인격으로 친히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육신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마1:21). 삼위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로고스가 인간의 전 본성 곧 육체와 영혼을 취하신 것이 성육신이다.

(마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00.

자기 백성들이 하늘부요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언제부터 기복주의에 대한 반발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당한 복을 설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부요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므로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시며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

성도가 헌금을 드리면서 복을 받기 위한 반대급부로써 조건부로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써의 합당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복을 받아 하늘의 부요함을 땅에 풀어 놓아 땅의 충만함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요10: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고후8: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창조경륜 & 구속사

나의 나 됨이 완성된 복음을 깨닫게 하심이라

복음 없는 나의 존재 무(無)이리니

복음의 담지 자들 만남의 복이 크도다

그대들에게 나 영원히 빚진 자라

님을 따라 복음의 빛 뿌리며 흔연히 가리이다

이 길 홀로 걷지 않도록 동역자 있음이 큰 은혜라

그대들의 발자취 민족교회의 선구자라

하늘아버지의 자기 영광에 함께 있으리라

주후 2019년 1월 1일

•

• 제 목 창조경륜과 구속사

• 펴낸날 2019.1.1.

• e-mail hanlove61@hanmail.net

• 편 집 한광수

• 연락처 010-4409-0691